

# 새만금 장기임대용지 66만㎡ 연내 조성

새만금개발청, 170억에 매입 계약 체결... 내년 34만㎡ 추가 확충  
22건 1조634억원 투자협약...전기차 등 첨단 업종 절반 이상 차지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산업단지 장기 임대용지 66만㎡ 조성을 올해 완료하고 내년 34만㎡를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최근 한국농어촌공사와 16만5000㎡(170억원)에 대한 매입 계약을 체결, 새만금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 총 66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예산(안)에 34만㎡(280억원) 확충 예산이 반영됨에 따라 내년까지 총 100만㎡가 차질 없이 조성될 예정이다. 장기임대용지 사업은 새만금 산업 내 입주 희망 기업에 대해 국가에서 1%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0년간 사업 부지를 제공하는 국가 정책 사업이다.

부지 조성 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며, 규모는 100만㎡로 총사업비는 1030억원(국비 80%, 지방비 20%)이다.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장기임대용지 관련 투자협약은 최근 1년간 총 22건에 1조634억원으로, 11개 기업이 1년 이내에 입주 계약을 완료해 협약 체결 이후 투자로 빠르게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투자협약 기업 중 전기차-재생에너지 등 첨단 산업 업종이 55% 수준으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지역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협약 업종은 전기차 6건, 재생에너지 6건, 금속가공 3건, 기타 7건 등이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산업단지 기업들의 관심 및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와 투자유치 등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새만금 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큰 자동차와 재생에너지 등 전략적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 전주한옥마을~정읍 내장산 연결 여행코스 개발...4가지 협력과제 추진

전주시장·정읍시장 업무협약

전주한옥마을과 사시사철 아름다움을 간직한 정읍 내장산을 연결하는 여행코스가 개발된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유진섭 정읍시장은 지난 25일 전주시장실에서 관광자원을 연계·발굴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사진〉 양 지방자치단체는 광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행정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연계 관광발전방안을 함께 찾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부적으로 양 지자체는 ▲도시 연계 관광정책개발과 관광마케팅 추진 ▲연계 관광 상품 개발 및 관광교류 등 공동 홍보마케팅 추진 ▲연계 관광콘텐츠 개발 및 관광마케팅 활성화 ▲기타 전주시·정읍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발굴 및 상호협력 등 4가지 주요 협력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전주한옥마을 경기전과 내장산을 연결한 조선왕조실록 관광콘텐츠 개발과 동학 관련 관광루트 공동개발, 문화관광해설사를 활용한 관광스토리텔링과 등을 함께 모색한다. 전주와 정읍의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는 여행지도와 관광홍보물 등을 공동으로 제작하는 등 공동 프로모션을 통해 상호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는 관광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양 지자체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문화관광해설사 관광해설 교류 등을 진행한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시와 정읍시가 처음으로 체결한 관광분야 업무협약"이라며 "양 도시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지역문화재를 활용한 '생생문화재사업' 프로그램.

## 군산시, 원도심 문화재 활용 사업 추진

11월까지 '문화재에 생기를 불어넣다' 프로그램 운영

군산시가 원도심의 문화재를 활용한 생생 문화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군산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문화재에 생기를 불어넣다'는 주제로 오는 11월까지 원도심 지역의 문화재를 활용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생생문화재는 지역의 우수한 자원을 문화, 관광, 교육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문화재청이 시행하는 것으로 군산시는 6년 연속 선정됐다. 이번엔 추진하는 사업은 군산 신흥동 일본식가옥, 옛 군산세관본관 등 5개 문화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문화재에 담긴 이야

기를 통해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군산의 근대역사 탐험', '문화재에서 만나는 작은 음악회(군산의 아픔과 희망을 노래하다)', '문화재 감성학교', '문화재로 진로를 잡아라' 등 지역 문화유산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역사문화 콘텐츠를 이용해 운영된다. 두양수 군산시 문화예술과장은 "군산의 문화재를 통해 역사를 학습하고 체험할 좋은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익산 문화예술의 거리에 들어선 익산청년센터 '청숲'.

## 익산시, 청년층 취·창업 지원 강화

7월 개관 '청숲' 맞춤형 취업 교육·문화활동 제공

익산시가 청년층의 취·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익산시에 따르면 청년 취업 활동 지원을 위해 지난 7월 개관한 청숲이 맞춤형 취업교육과 문화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이들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문화예술의 거리에 들어선 청년활동 공간 청숲에서는 직업상담사가 취업과 심층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직업 적성 검사 등을 통해 진로 상담도 병행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익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대학일자리센터 등 일자리 유관기관과 협

조체제를 구축해 일자리 매칭을 우선하고 기업 구인정보도 제공한다. 청년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이미지와 면접, 자기소개서 컨설팅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곳에서는 청년층을 위한 문화·소통프로그램도 펼쳐진다. 청년들의 여가활동을 위해 소도구 필라테스와 보컬트레이닝, 캘리그라피 등 5가지 강좌로 구성된 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 남원시,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1차 회의

주민제안사업 175건 발굴 타당성 검토 착수

남원시가 2020년 주민제안사업으로 175건을 발굴해 타당성 검토에 착수했다. 남원시는 최근 시청 회의실에서 2020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원시는 작년 7월에 구성된 제3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시민제안사업 발굴과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해 왔다. 회의에서는 주민 직접 제안 및 읍면동 지역회의를 거쳐 신청된 175건의 사업에 대해 사업부서 검토의견을 공유하고, 지난날 실시한 2019년 주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시민위원회는 30일부터 10월 25일까지 4주 동안 각 분과위원회별로 현장방문 등을 실시해 시민 제안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10~11월에는 시민위원회 2차 전체회의 및 대표회의(민관협의회)를 통해 제안사업에 대한 최종 확정 의견서를 작성한 뒤, 시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주민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재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고창군, 판인 글씨체 신재효 '판소리 춘향가 서체'로 바꾼다**

고창군은 판인의 글씨체를 동리 신재효 선생의 '판소리 춘향가 서체'〈사진〉로 바꾼다고 29일 밝혔다. 판인은 기관의 공식 문서에 사용하는 인장을 말한다. 고창군은 그동안 한글 전서체를 사용했으나 알아보기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변경작업을 진행해왔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고창군, 판인 글씨체 신재효 '판소리 춘향가 서체'로 바꾼다**

고창군은 판인의 글씨체를 동리 신재효 선생의 '판소리 춘향가 서체'〈사진〉로 바꾼다고 29일 밝혔다. 판인은 기관의 공식 문서에 사용하는 인장을 말한다. 고창군은 그동안 한글 전서체를 사용했으나 알아보기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변경작업을 진행해왔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그린알로에

# 그린궁 HOME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